



재대신 화관을

로힝야를 위한 글로벌 기도의 날



젓더미와 슬픔, 절망의 이야기가 바로 로힝야족의 이야기입니다. 무국적자가 된 후, 대부분의 로힝야족은 대량학살 때문에 미얀마로부터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계속 차별, 배제, 구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은 전쟁터 같습니다 - 그들은 의료, 교육, 그리고 안정적 삶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로힝야족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시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 로힝야족은 복음의 일꾼들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축복으로, 절망을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고난은 곧 끝날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영원히 함께 할 것 입니다.

누르의 이야기입니다

도미노 하나를 넘어트리면 전체 도미노가 넘어집니다. 트라우마는 그들에게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대량학살의 공포는 그것을 견디는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에 지속적인 아픔과 두려움을 남깁니다. 한 번의 만행이 앞으로의 세대의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르(Nu)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과거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미노 줄은 계속해서 넘어져, 그녀는 불타는 마을에서 도망쳐야 했고, 중매 결혼으로 인해 말레이시아로 인신 매매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는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을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로 누르(Nur)는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히 헤어졌다는 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지 1년 만에 누르(Nur)의 남편은 사망했고, 그녀의 아들은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그녀의 집은 불타버렸습니다. 어둠이 그녀의 삶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누르(Nur)는 트라우마를 위한 전문 치료를 하는 사회적 기관에서 겨우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 기관은 그녀의 과거 트라우마가 일을 하는 것에 방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지지해 주었고, 그녀의 현실적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사와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화재직후 누르(Nur)를 만나 그녀와 함께 젓더미를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사61:3, 새번역)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눅21:28, 새번역)





파헤쳐 타다 남은 물건 건지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 비극을 통해 우리 깊은 우정이 쌓였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 함께 앉아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시민권을 얻었을 때 기뻐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서로 연결된 도미노의 줄처럼 움직이며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르(Nur)의 눈은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다른 친구들을 만나 주고 그들의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조금씩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도미노를 넘어뜨리면 선 전체가 넘어집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되면 집 전체가 다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적이 악으로 대적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연결됩니다. 그리고 최상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무너진 틈 사이에 서서 영적인 전투를 위한 기도가 더 모아지도록. 2028년까지 로힝야족의 10%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에 이르도록.
-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복음의 일꾼이 없는 곳에 복음의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 트라우마의 두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슬픔이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 불법체류로 인해 구금되거나 갇혀 있는 이들이 풀려나고, 트라우마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려 있는 이들이 자유를 경험하도록.
- 믿음을 가진 로힝야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여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 로힝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새로운 신자들이 의의 나무가 되어 예수님과 관계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열매가 많이 맺히어 로힝야 공동체가운데 예수님을 예배하는 회심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주님께 감사하고 선포합시다!

- 이 고통은 끝이 날 것입니다! 로힝야족은 수치 대신에, 구원의 때에 기뻐하고 영원히 기뻐할 것임을 선포합시다.
- 이미 구원의 옷을 받은 로힝야족은, 의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 땅이 썩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 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사 61:11 새번역)

